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과의 관계

Mothers' Expectation on School Adjustment of Their Preschool
Children and Mothers' Perception of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Competence

신호정(Sin Ho Jeong)*, 서영숙(Suh Young Sook)**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취학 전 유아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첫째,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자녀를 초등학교에 진학시킨 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아보다는 여아에 대해, 첫째 자녀보다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높은 학교 적응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아의 월령이 높을수록 그 기대가 높았다. 둘째, 취학 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과 규칙 등의 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았다. 셋째, 취학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적응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인지적 능력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수업과 규칙적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학교적응기대, 부모효능감, 유아유능성, 취학 전 유아, 부모자녀기대

* 제1저자 : 경동유치원 교사

** 공동저자(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youngss@sookmyung.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을 통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며, 이 전환점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사회 경험과 함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가 학교경험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학교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적응은 아동 개인의 전반적인 삶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들의 관심과 염려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취학할 연령이 된 유아가 입학 시기를 늦추려는 이른바 취학유예 신청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의 탄력적 운영이 시작된 97년 3,178명에서 2000년 4,632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교원신문, 2002. 4. 10). 이는 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부적응을 염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 등과의 관계 연구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과 같은 아동 변인과의 관계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중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박은희, 2004) 중요한 요인으로 취학 전 유아 부모의 학교적응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아가 학교에 적응할 때, 유아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결정을 하는 것은 대체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 학교적응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 학교적응기대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규칙,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에 잘 대처하고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은희(2004)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 자녀 개인의 사회, 문화,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기대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기다리는 행동의 준비상태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현재상황과 부모, 자녀 개인의 여러 요소 및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절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부모의 부적절한 과잉 기대는 아동의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기대가 아동의 적응 및 발달과 관계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교적응과 관련된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취학을 앞 둔 부모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나 관심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자녀 발달에까지 영향을 준다(서미정, 김경연, 2000; 안지영, 2001). 효능감이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이나 신념이다(Bandura, 1982).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로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며(Luster & Kain, 1987),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기대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Mondell과 Tyler(198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동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하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설정할 때, 특히 취학 유아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와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는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유능성 정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의 유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기대도 높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자녀유능성 인식은 실질적인 자녀 유능감 형성에 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서미정 등, 2000; Ladd & Price, 1987).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모가 가진 자녀유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는 부모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유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취학을 앞 둔 유아의 어머니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 개인은 물론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유아기 어머니를 위한 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 기대와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는 어머니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는 어머니의 자녀유능성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6곳과 어린이집 8곳의 만 5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 340명이다. 대상자를 만5세 유아의 어머니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어머니와 그 자녀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N=340)

변인	구분	n	%
모연령	20대	13	3.9
	30대	286	84.3
	40대	40	11.8
	50대	1	0.3
모학력	중졸 이하	4	1.18
	고졸	119	35.2
	대졸	196	57.6
	대학원이상	21	6.2

모직업	자영업	21	6.2
	판매업	7	2.1
	서비스업	12	3.6
	사무관리직	51	15
	전문직	54	15.9
	생산기능직	12	3.5
	전업주부	183	53.8
경제수준 (수입)	100만원 미만	4	1.1
	100~199만원	15	4.4
	200~299만원	108	31.7
	300~399만원	104	30.5
	400~499만원	63	18.5
	500만원 이상	46	13.5
유아 성별	남	193	56.8
	여	147	43.2
출생순위	첫째	215	63.2
	둘째	114	33.5
	셋째 이상	11	3.2
취원 기관	유치원	173	50.9
	어린이집	167	49.1
개월 수	67~71개월	102	30
	72~76개월	125	36.8
	77~81개월	113	33.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30대가 대부분(286명, 54.3%)이며, 학력은 대졸이 57.6%(196명), 고졸이 35.2%(119명)이며, 전업주부가 53.8%(183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6.8%(193명)이며 월령은 67개월에서 81개월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녀 학교적응기대 측정 척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를 측정하는 도구로 임정순(1993)의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척도'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기대가 포함되도록 수정. 보완(예;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발표한다 →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하여 총 31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기대 척도는 교사관계적응 기대(교사와 유아의 조화로운 관계, 교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인지, 꾸중에 대한 반응, 교사를 권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교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

관계적응 기대(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기대, 학급 생활의 적극성 기대 등), 학교수업적응 기대(수업시간 주의집중,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이나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에 대한 기대), 학교규칙적응 기대(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 등의 네 하위내용으로 구성된다. 자녀의 학교적응기대에 대한 하위 내용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77~.85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

표 2
자녀 학교적응기대 하위 내용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교사관계적응 기대	1,5,12,13,16,20,28	7	.77
친구관계적응 기대	3,7,10,14,23,24,25,27	8	.81
학교수업적응 기대	2,8,17,19,21,22,29	7	.78
학교규칙적응 기대	4,6,9,11,15,18,26,30,31	9	.85
전체	1~31	31	.93

2) 부모효능감 인식 측정 척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한 부모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 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등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으로 구성된 2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신뢰도는 .84였다.

표 3
부모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내용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부모 효능감	1,2,3,4,(5),(6),7,8,9	9	.84

()는 역채점 문항

3) 자녀유능성 인식 측정 척도

자녀유능성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Harter(1982)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competence(SPPC)을 번안, 수정한 전경숙(1992)과 서미정(1999)의 부모용 자녀유능성 인식 측정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 유능성 인식 측정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능력 평가 5문항, 인지적 능력 평가 5문항, 사회적 능력 평가 9문항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정말 그렇다 4점' 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9점에서 7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유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4~.87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였다.

표 4
자녀유능성 척도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구성	문항수	신뢰도
운동능력	3, 6, 9, 12,(17)	5	.84
인지적 능력	1,4,7,10,13	5	.85
사회적 능력	2,5,8,11,14,15,16,18,19	9	.87
전체	1~19	19	.89

()는 역채점 문항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타당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 한 곳의 만5세 유아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난해한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6곳과 어린이집 8곳의 만5세반 유아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각 반 교사의 협조를 얻어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를 통해 배포하였고,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배포된 500부의 질문지 중 36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잘못 표기된 질문지를 제외한 340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와 유아의 배경 변인에 따른 자녀 학교적응기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자녀유능성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성 인식이 유아기 자녀의 학교적응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 차이

취학 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를 어머니와 자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 학교적응기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t=-2.94, p<.01$) 자녀 학교적응기대 중 수업적응에 대한 기대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 학교적응기대의 차이는 교사관계적응($t=2.046, p<.05$), 친구관계적응($t=2.345, p<.05$), 수업적응($t=2.345, p<.05$)에 대한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업 부모가 비취업 부모보다 더 높은 학교적응 기대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자녀 취학 경험 유무에 따른 자녀 학교적응기대의 차이는 수업적응($t=2.63, p<.01$)에 대한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초등학교 이상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그런 경험이 없는 어머니에 비해 미취학 자녀의 학교수업 적응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의 차이($t=-2.75, p<.01$)가 있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처음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전에 자녀를 보내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둘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학교적응기대 중 학교수업 적응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 차이는 교사관계적응($t=-2.27, p<.05$), 수업적응($t=-3.0, p<.001$), 규칙적응($t=-2.93, p<.001$)에 대한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는 남아보다는 여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학교적응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가 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67개월부터 81개월까지 분포된 유아를 월령 기준 상. 하위 25%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내용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자녀의 월령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변인별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 차이

변인	하위변인(n)	학교적응기대			
		교사관계적응	친구관계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
학력	고졸이하(n=123)	3.02(.41)	3.05(.43)	2.82(.46)	3.20(.41)
	대졸이상(n=217)	3.09(.40)	3.08(.38)	2.96(.42)	3.21(.42)
	t	-1.736	-0.73	-2.94**	-0.347
취업 여부	취업(n=157)	3.11(.40)	3.12(.41)	2.96(.42)	3.22(.41)
	비취업(n=183)	3.02(.41)	3.02(.40)	2.84(.45)	3.19(.42)
	t	2.046*	2.345*	2.345*	0.641
자녀취학여부	유경험(n=119)	3.11(.40)	3.11(.38)	2.98(.43)	3.26(.42)
	무경험(n=221)	3.04(.40)	3.05(.41)	2.85(.44)	3.18(.41)
	t	1.597	1.302	2.63**	1.682
자녀출생순위	첫째(n=193)	3.03(.41)	3.04(.41)	2.85(.45)	3.17(.42)
	둘째이상(n=147)	3.12(.41)	3.11(.39)	2.99(.43)	3.27(.42)
	t	-1.95	-1.45	-2.75**	-1.90
자녀 월령	상위월령				
	25%(n=84)	3.13(.40)	3.14(.38)	3.14(.38)	3.32(.41)
	하위월령				
	25%(n=76)	2.96(.45)	2.97(.43)	2.76(.44)	3.10(.45)
t	-2.59*	-2.50*	-3.98***	-3.16**	
자녀 성별	남아(n=193)	3.02(.43)	3.04(.42)	2.84(.46)	3.15(.43)
	여아(n=147)	3.12(.35)	3.10(.37)	2.98(.41)	3.28(.39)
	t	-2.27*	-1.493	-3.0***	-2.93***

* $p<.05$. ** $p<.01$. *** $p<.001$.

2.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인식과의 관계

취학 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수

업적응($r=.48, p<.01$), 친구관계적응($r=.47, p<.01$), 교사관계적응($r=.46, p<.01$), 규칙적응($r=.38, p<.01$)에 대한 기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효능감 인식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인식이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의 하위내용인 교사관계적응 기대, 친구관계적응 기대, 수업적응 기대, 규칙적응 기대 각각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학교적응 기대 가운데 교사관계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부모 효능감($\beta=.46, p<.0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진학 이후 자녀와 교사의 관계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관계적응 기대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은 21.7%이다.

표 6
부모효능감과 학교적응기대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F	R ²
부모효능감	교사관계적응	.463***	93.75***	.217
	친구관계적응	.472***	98.15***	.223
	학교수업적응	.479***	98.92***	.227
	학교규칙적응	.435***	74.85***	.189

*** $p<.001$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 가운데 자녀의 친구관계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부모효능감($\beta=.47, p<.001$)이 예측변인이 되며, 자녀의 수업적응을 예측하는 것 역시 부모효능감($\beta=.48, p<.001$)이 예측변인이 된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진학 이후 자녀의 친구관계 적응에 대한 기대와 수업적응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기대를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은 각각 22.3%와 22.7%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자녀 의학교적응기대 가운데 규칙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어머니의 효능감이($\beta=.43, p<.001$) 예측변인이 되며, 그 설명력은 18.9%이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 어머니가 유아의 학교적응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어머니로서의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이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인 중 수업적응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3개의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자녀유능성 인식와의 관계

취학 전 유아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자녀유능성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기대와 자녀유능성 인식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유능성 인식이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기대를 얼마나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자녀유능성 인식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 평가, 사회적 능력 평가, 운동 능력 평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 4개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표 7

학교적응기대에 대한 자녀유능성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자녀유능성변인	β	t	F	누적R ²
교사관계적응	사회적 능력	.454***	8.98	88.314***	.441
	인지적 능력	.289***	6.12		
	운동능력	.033	.71		
친구관계적응	사회적 능력	.568***	11.66	103.68***	.481
	인지적 능력	.126**	2.77		
	운동능력	.101*	2.28		
학교규칙적응	사회적 능력	.229***	3.83	31.598***	.220
	인지적 능력	.327***	5.86		
	운동능력	-.038	-.692		
학교수업적응	사회적 능력	.224***	4.44	89.306***	.444
	인지적 능력	.542***	11.50		
	운동능력	-.041	-.899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 가운데 교사적응기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녀유능성 인식의 2개 요인인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인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4%이다. 자녀의 친구관계적응 기대에서는 자녀유능성 인식의 하위 변인인 운동능력,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모두 종속변인인 친구적응기대의 예측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세 변인 중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교사적응기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48%이다. 어머니의 자녀 규칙적응기대에 자녀유능성 인식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인식의 규칙적응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22%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수업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의 경우 자녀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 수업적응기대의 예측 변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44%로 매우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을 앞 둔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가 어머니와 유아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학교적응기대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유능성 인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반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3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자녀 진학 경험 유무에 따라, 유아 개인적 변인인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개월 수에 따라 학교적응기대의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학교에서의 수업적응기대에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수업적응기대가 높았으며,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에 진학시켜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유아자녀에 대한 수업적응기대가 높았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교사적응기대, 수업적응기대, 규칙적응기대가 높았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화적 배경과 교육적 수준 등에 따른 자녀 발달기대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더 이른 나이에 발달하기를 기대한다는 결과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다(이효재, 장하진, 1980)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경향이 빈번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정영미, 1996; 정은혜, 2001; 현온강, 태진, 2000; Klein, 1982; Pianta, 1995)와 여아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의 교사관계, 집중력, 교구이용 능력, 자립심이 남아보다 높다는 임말자와 최경순(2003)연구를 참고할 때 여아들의 기관적응 정도가 높아 어머니들이 남아보다는 여아에 대해 높은 적응기대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유아의 월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가 높다는 결과와도 통하는 것으로 정은혜(2001)의 3세~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하

여 볼 때, 유아의 개월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 성숙된 것으로 보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자녀의 교사, 친구, 수업적응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기대수준을 조사한 홍정희(1992)의 연구에서 전문직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취업을 하여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 학교적응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Fox, Platz 그리고 Bently(1995)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보다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학교적응기대를 높게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부모효능감 인식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자녀 학교적응기대 가운데 수업적응기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학 이후 수업적응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자녀유능성 인식은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취학 전 유아의 사회성과 인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기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월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기대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취업한 어머니, 자녀의 월령이 많을수록 높으며,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는 자신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유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 정도가 어머니 변인과 유아변인이 함께 작용하며 어머니가 자신이나 자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기대도 높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연구결과는 처음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나 남아를 둔 부모의 경우, 직업을 가지지 않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학교안내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취학을 앞둔 부모들이 자녀학교적응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며, 부모들의 자녀 학교적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이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도록 돕거나 자녀의 유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는 기대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도 있을 것이며, 아버지의 기대 역시 유아의 발달과 성취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학을 앞 둔 유아 아버지의 기대에 관한 연구와 아버지 개인적, 환경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연구를 토대로 취학을 앞 둔 유아의 어머니가 학교적응에 대해 가지는 염려 혹은 관심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줄 수 있는 적절한 취학 유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취학 전 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에 대해 가지는 관심 및 염려가 취학 후와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자녀의 취학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의 어머니에 한하여 연구 대상을 표집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유능성 인식이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학교적응기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은희. (2004).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미정. (1999).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김정연. (2000).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1(1), 45-56.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재, 장하진. (1980). **사회학**. 서울 : 경문사.
- 임말자, 최경순. (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 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미. (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혜. (2001).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태진. (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 25-42.
- 홍정희. (1992). 유아기 자녀행동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기대와 역할 수행정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elf 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Fox, R. A., Platz, D. L., & Bently, K. S. (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ur problem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Klein, H.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sett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 259-268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29*, 301-311.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Pianta, R. C. Steinberg, M., & Rollins, K. (1995).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deflections in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297-31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xpectation on school adjustment of their preschool children and mothers' perception of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competence.

Subjects were 340 mothers of 4-5 year old children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Kyunggy area. Test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y Lim(1993).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dapted by Shin(1997), and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 competence adapted by Jeon(1992) and Suh(1999) were adapted and used to measure mothers' expectation of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others' perception on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competence each.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thers who have jobs and have graduated university or more showed higher expectation on school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Mothers also expect higher school adjustment of their daughters and of not the first child in their family. The more mothers percept their parenting efficacy, the higher they expect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others's perception on their children's competence also showed same relationship with expectation of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at is, the more mothers percept their children's competence, the higher they expect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2007. 6. 10. 접수 : 2007. 6. 18. 채택